

대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증상과 대학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이용호*, 김희경**, 김남송***

원광대학교 보건·보완의학대학원 보건학과*,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Psychological Symptoms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Lee Yong-ho*, Kim Hui-kyung**, Kim Nam-song***

Health Science, Wonkwang Graduate School of health & Complementary Medicine*

Health Science, Wonkwang General Graduate School**

Preventive Medicine, Wonkwang Medical School***

요약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건강수준에 따른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고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의 심리적 증상과 대학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경로분석 결과, 연령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신체적 증상은 긍정적인 영향을, 우울과 불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과 대학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크기 및 경로를 확인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 경로분석

Abstract The study aimed to understand how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consciousness and health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are related to physical symptoms, psychological symptom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while it examined how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re affected by the physical symptoms and psychological symptoms as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e college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path analysis, age, with the social support as a medium, appeared to hav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while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had been found, with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s a media, to affect the students' campus life satisfaction, with physical symptoms positively while depression and anxiety negatively. In conclusion, the study verified mediated effects, sizes and paths of both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when they are related to physical symptoms, psychological symptoms and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campus life.

Key Words : College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Social support, Mediated effect, Path analysis

* 본 논문은 2013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Received 20 July 2013, Revised 26 August 2013

Accepted 20 Octo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Kim Nam-song (Wonkwang Medical School)

Email: knsong@wonkwang.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대학생들은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독립을 이루려는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적응하려는 욕구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입학을 시작으로 대학생활 적응, 학비부담, 가치관단, 진로, 대인관계, 부모로부터의 독립, 취업, 미래의 불확실성 및 종교 등의 문제들과 직면하게 된다[1-4].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될 경우 전반적인 대학생활의 불만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졸업 후 사회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건강의 유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5, 6].

대학생들은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적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해 자아평가를 하게 된다. Kliever와 Sandler[7]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 유사하게 반응하지만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이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어려운 사건에 접했을 때, 쉽게 포기하고 회피하는 등의 정서 중심적인 대처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8-12].

그리고 또 한가지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완충작용을 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13, 14]. 사회적 지지는 주변인들로부터 얻게 되는 정서적 지지 외에도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주며, 좌절을 극복하게 하여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15, 16]. 특히 사회적 지지는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 학교 및 사회생활의 적응과 만족도 향상, 각종 심리적 제반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2, 17].

현재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은 단순히 소화기계 장애, 동통,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증상,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과의 관계,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대학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밝히는 단편적인 연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어떤 요인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비롯하여 사회적 지지수준, 자아존중감 및 대학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건강수준에 따른 신체적 증상, 우울 및 불안의 심리적 증상,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심리적 및 신체적 증상과 대학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되는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전북소재 대학생 1200명 조사 자료에서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98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은 개별자기기입에 의한 설문 조사법을 사용하였다. 2011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구목적과 설문지 작성법을 연구 대상자들에게 설명한 후 직접 기입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와 척도, 문항수 및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표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ing Instrument

Instrument	n	Scale	Cronbach's α
Physical symptoms	18	5	0.93
Depression	21	4	0.90
Anxiety	21	4	0.94
Self-esteem	10	5	0.82
Social support	25	5	0.97
College life satisfaction	17	5	0.89

신체적 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덕웅[18] 등이 개발한 신체적 증상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체적증상 측정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소화기장애 5문항, 심혈관 장애 6문항, 동통 4문항, 불면증 3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신체적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 는 0.93으로 나타났다. 우울척도는 Beck[19]의 BDI를 이영호와 송종용

[20]이 변안한 척도이며 불안척도는 Beck 등[21]이 불안과 우울을 구별해주는 새로운 측정도구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한 것으로 한국어로 표준화 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우울증상과 불안척도는 각각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는 각각 0.90과 0.94 이다. 사회적 지지는 황윤경[22]이 박지원[23]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하여 표준화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총 25문항으로, 정서적지지 7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는 0.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4]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재(1974)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0.82로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는 한은성[25]의 "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 문항을 사용하였다. 대학생활만족도 척도는 총 17문항으로, 전반적인 대학생활 6문항, 대학교육의 질 6문항, 행정, 복지서비스 5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는 0.89로 나타났다.

2.2 자료분석방법

조사 자료에서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98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목적에 따라 각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 프로그램 SPSS 13.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여학생이 719명(73.3%), 남학생 262(26.7%)명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으며, 연령은 21~25세(62.5%), 20세 이하(28.1%), 26세 이상(9.4%) 순이었다. 학과는 전체 연구대상자중 보건계열(50.3%)이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의료생명계열(30.7%), 인문사회계열(11.5%), 자연과학 및 이공계열(4.9%), 예술체육계열(2.7%) 순이었다. 건강수준 및 행태에 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2). 전반적 건

강수준에 대해 건강하다고 인식한 대학생은 981명 중 783(79.8%)명이었으며, 198명(20.2%)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표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N=981)

	Category	N	%
Gender	Male	262	26.7
	Female	719	73.3
Age	Under 20	276	28.1
	Between 21~25	613	62.5
	Over 26	92	9.4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3	11.5
	Natural sciences	48	4.9
	Arts and sports	26	2.7
	Biomedicine	301	30.7
	Health science	493	50.3
General health level	Satisfactory	783	79.8
	Unsatisfactory	198	20.2

3.2 연구대상자의 신체증상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증상(소화기장애, 심혈관장애, 동통, 불면증)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표 3).

(Table 3) Physical Symptoms Scores of Research Participants

		Digestive disorder	Cardiovascular disorder	Pain	Insomnia
Gender	Male	10.6±4.1	11.8±4.6	9.0±3.7	6.9±2.8
	Female	11.6±4.1	12.7±4.8	10.6±3.6	7.1±2.7
	t	-3.518***	-2.750**	-6.114***	-1.095
Age	Under 20	11.1±3.9	12.2±4.7	10.0±3.6	6.6±2.6a
	21-25	11.5±4.3	12.5±4.6	10.3±3.7	7.2±2.7b
	Over 26	11.0±4.2	13.0±5.3	9.7±3.9	7.3±3.2b
	F	1.627	.930	1.232	5.187** (a<b)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7±3.7	12.4±4.6	9.6±3.6	7.0±2.9
	Natural sciences	10.0±3.7	11.2±4.1	9.8±3.6	7.0±2.6
	Arts and sports	11.0±4.5	13.8±5.2	11.3±4.0	7.8±3.4
	Biomedicine	11.5±4.5	12.3±4.6	10.0±3.8	7.0±2.7
	Health science	11.6±4.0	12.6±4.8	10.4±3.6	7.1±2.8
	F	2.533*	1.714	2.204	.527
General health level	Satisfactory	10.9±4.0	11.9±4.5	9.7±3.6	6.7±2.6
	Unsatisfactory	13.0±4.3	14.4±5.2	11.9±3.8	8.3±2.9
	t	-6.446***	-6.186***	-7.507***	-8.264***

성별에 따른 신체증상은 소화기장애, 심혈관장애, 동통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1$). 연령에 따른 점수 차이는 불면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20세 이하보다 21~25세 그리고 26세 이상에서 불면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계열에 따라서는 소화기 장애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검증 결과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른 신체증상 점수는 4가지 하위척도 모두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01$).

3.3 연구대상자의 우울증상

(Table 4) Depression Scores of Research Participants

		Depression	t	F	posthoc
Gender	Male	8.2±7.6	-3.394**		
	Female	10.1±7.7			
Age	Under 20	8.6±7.1a		5.321**	a<b
	21-25	10.2±7.9b			
	Over 26	8.6±8.3c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8±6.3		1.102	
	Natural sciences	8.4±6.7			
	Arts and sports	8.2±7.4			
	Biomedicine	9.7±8.3			
	Health science	9.9±7.8			
General health level	Satisfactory	8.6±7.1	-7.646***		
	Unsatisfactory	13.7±8.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점수는 다음과 같다(표 4). 성별에 따른 우울 점수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연령의 경우, 20세 이하, 26세 이상의 그룹보다 21-25세의 그룹의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건강수준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에 비하여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났다($p<0.001$).

3.4 연구대상자의 불안증상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점수는 표 5과 같다. 여기에서 성별, 학과 계열, 건강수준에 따른 불안 점수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불안 점수가 현저하게 높았다($p<0.001$). 학과계열에 따라서도 불안점수의 차이가 있었으나($p<0.05$), 사후검증 결과 학과계열 간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건강 수준에 따른 차이

는 건강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불안점수가 현저하게 높았다($p<0.001$).

(Table 5) Anxiety Scores of Research Participants

		Anxiety	t	F	posthoc
Gender	Male	14.6±11.8	-5.386***		
	Female	19.5±12.7			
Age	Under 20	18.0±12.6		.969	
	21-25	18.5±12.5			
	Over 26	16.6±13.4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7.1±11.3		2.511*	
	Natural sciences	13.7±10.9			
	Arts and sports	19.6±15.2			
	Biomedicine	17.7±13.2			
	Health science	19.1±12.4			
General health level	Satisfactory	16.8±12.0	-7.022***		
	Unsatisfactory	23.7±13.6			

3.5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여기에서 성별, 연령, 학과계열, 건강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p<0.001$), 연령에 따라서는 20세 이하의 그룹보다 21-25세, 26세 이상의 그룹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p<0.01$). 학과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의 응답자들이 보건 계열의 응답자들보다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높았다($p<0.001$). 건강수준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점수가 높았다($p<0.001$).

(Table 6) Self-esteem Scores of Research Participants

		Self-esteem	t	F	posthoc
Gender	Male	35.4±5.8	4.609***		
	Female	33.6±5.1			
Age	Under 20	33.0±4.7a		7.358**	a<b,c
	21-25	34.5±5.5b			
	Over 26	34.4±5.8c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5.9±5.8a		7.902**	a>b
	Natural sciences	35.1±5.5			
	Arts and sports	35.1±5.3			
	Biomedicine	34.5±5.7			
	Health science	33.2±4.9b			
General health level	Satisfactory	34.5±5.4	5.134***		
	Unsatisfactory	32.5±4.8			

3.6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네 가지의 하위 척도를 가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에서 점수가 높았으며($p<0.01$),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점수 차이는 네 개의 하위 척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는데, 20세 이하의 그룹보다 21-25세와 26세 이상의 그룹에서 사회적 지지의 점수가 높았다($p<0.01$). 학과 계열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의 점수 차이를 보였는데, 정서적 지지의 경우는 인문사회계열이 보건계열보다 점수가 높았으며($p<0.001$), 평가적 지지와 정보적지지 및 물질적 지지의 경우에는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계열이 보건계열보다 점수가 높았다($p<0.001$). 건강 수준의 경우 역시 건강하다고 지각한 그룹이 네 가지 하위 척도 모두에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각한 그룹보다 점수가 현저하게 높았다($p<0.01$).

<Table 7> Social Support of Research Participants

		Emotional support	Appraisal support	Informative support	Material support
Gender	Male	25.7±4.9	22.4±3.9	22.1±4.0	22.0±4.4
	Female	25.3±4.5	21.4±3.7	21.0±3.7	21.0±4.0
	t	1.332	4.014***	3.944***	3.306**
Age	Under 20	24.6±4.8a	20.8±3.7d	20.4±3.7g	20.5±4.0j
	21-25	25.7±4.5b	21.9±3.7e	21.6±3.8h	21.4±4.1k
	Over 26	26.0±5.2c	22.5±4.1f	22.4±3.9i	22.4±4.5l
	F	6.162** (a<b,c)	10.533*** (d<e,f)	13.146*** (g<h,i)	8.342*** (j<k,l)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6.4±4.5a	22.8±3.5c	22.4±3.9f	22.3±4.5i
	Natural sciences	26.8±3.9	23.1±3.2d	22.4±3.5g	23.2±3.4j
	Arts and sports	26.7±5.8	22.9±4.6	21.4±4.2	21.3±5.3
	Biomedicine	25.7±4.7	22.1±3.6	22.0±3.5	21.6±4.2
	Health science	24.8±4.6b	20.9±3.7e	20.6±3.8h	20.6±3.9k
	F	5.240*** (a>b)	12.600*** (c,d>e)	10.606*** (f,g>h)	8.721*** (i,j>k)
General health level	Satisfactory	25.7±4.7	22.0±3.7	21.5±3.8	21.5±4.1
	Unsatisfactory	24.1±4.4	20.6±3.7	20.5±3.7	20.3±4.1
	t	4.366***	4.620***	3.464**	3.699***

3.7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의 하위 척도는 전반적인 대학생활, 대학 교육의 질, 행정복지서비스로 나뉘는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점수 차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 성별에 따라서는 행정복지서비스에서 점수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5$), 연령별로는 대학 교육의 질과 행정복지서비스에서 20세 이하가 21-25세보다 점수가 높았다($p<0.05$).

학과 계열의 경우, 전반적인 대학생활에서만 인문 사회계열 및 보건계열보다 의료생명계열의 점수가 현저하게 높았다($p<0.001$). 건강 수준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인 대학생활과 행정복지서비스에서 건강하다고 지각한 그룹이 불건강하다고 지각한 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5$).

<Table 8> College Life Satisfac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College life in general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Welfare administration service
Gender	Male	19.0±3.5	18.0±4.3	13.3±4.2
	Female	18.6±3.1	18.0±3.8	14.0±3.6
	t	1.621	.189	-2.113*
Age	Under 20	19.1±3.1	18.6±3.7a	14.9±3.5c
	21-25	18.5±3.2	17.8±4.0b	13.4±3.7d
	Over 26	18.8±3.6	17.7±4.4	12.8±4.3
	F	2.654	4.530* (a>b)	18.885*** (c>d)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7.7±3.1a	17.7±3.5	13.4±3.7
	Natural sciences	18.5±2.8	18.2±3.8	14.1±3.5
	Arts and sports	19.4±2.1	19.1±3.6	15.4±3.1
	Biomedicine	19.5±3.2b	18.0±4.4	13.5±4.1
	Health science	18.5±3.2c	18.0±3.9	14.0±3.6
	F	8.633*** (a,c<b)	.650	2.475*
General health level	Satisfactory	19.0±3.1	18.1±4.0	13.9±3.8
	Unsatisfactory	17.8±3.2	17.5±3.8	13.3±3.7
	t	4.706***	1.923	2.187*

3.8 대학생활만족도 모형의 경로 분석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NFI 0.914, CFI 0.927, GFI 0.92, AGFI 0.891, TLI 0.911, RMSEA 0.072로서 대체로

양호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Table 9〉 Goodness-of-fit index of research model

χ^2	df	Q값	RMSEA	NFI	CFI	GFI	AGFI	TLI
759.17	125	6.073	0.072	0.914	0.927	0.92	0.891	0.911

대학생의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과 대학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표 11).

〈Table 10〉 The Results From Path Analysis On The Campus Life Satisfaction

Path	coefficient of path			C.R.	p
	non-standar dization	S.E.	standardi zation		
Physical Symtoms→ Self-esteem	0.205	0.091	0.129	2.261	0.024
Depression→ Self-esteem	-0.285	0.022	-0.412	-12.987	***
Anxiety→Self-esteem	-0.101	0.023	-0.239	-4.419	***
Depression→ Social support	-0.087	0.017	-0.169	-4.999	***
Anxiety→ Social support	-0.026	0.01	-0.084	-2.669	0.008
Self-esteem→ Social support	0.3	0.024	0.404	12.408	***
Age→Social support	0.798	0.19	0.117	4.208	***
Health Level→C.L.S	-0.319	0.16	-0.067	-1.999	0.046
Major→C.L.S	0.102	0.04	0.086	2.545	0.011
Social support→ C.L.S	0.135	0.022	0.265	6.202	***
Self-esteem→ C.L.S	0.035	0.015	0.091	2.3	0.021

*C.L.S : Campus Life Satisfaction

일반적 특성인 연령은 사회적 지지에 직접효과를 미치며(경로계수 0.789, $p < 0.001$, 효과크기 0.117), 또한 대

학생생활만족도에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효과크기 0.031, $p < 0.05$).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으며 이를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대학생활만족도에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학과(경로계수 0.102, $p = 0.011$, 효과크기 0.086), 건강수준(경로계수 -0.319, $p = 0.046$, 효과크기 -0.067), 자아존중감(경로계수 0.30, $p < 0.001$, 효과크기 0.091), 사회적 지지(경로계수 0.135, $p < 0.001$, 효과크기 0.265)로 나타났다.

〈Table 11〉 Effect Size of Path Analysis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Path	Standardiz ed Effect Size	p
Direct Effect	Age→ Social support	0.117	0.019
	Major→ College life satisfaction	0.086	0.014
	Health level→ College life satisfaction	-0.067	0.054
	Physical symptoms→ Self-esteem	0.129	0.023
	Anxiety→ Self-esteem	-0.239	0.005
	Depression→ Self-esteem	-0.412	0.004
	Anxiety→ Social support	-0.084	0.011
	Depression→ Social support	-0.169	0.006
	Self-esteem→ College life satisfaction	0.091	0.082
	Self-esteem→ Social support	0.404	0.012
Indirect Effect	Social support→ College life satisfaction	0.265	0.018
	Age→ Social support→ College life satisfaction	0.031	0.007
	Physical symptoms→ Self-esteem→ College life satisfaction	0.026	0.014
	Anxiety→ Self-esteem, Social support→ College life satisfaction	-0.07	0.004
	Depression→ Self-esteem, Social support→ College life satisfaction	-0.126	0.007

따라서 학과별 차이로,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는 신체적 증상(경로계수 0.205, $p = 0.024$, 효과크기 0.129), 우울(경로계수 -0.285, $p < 0.001$, 효과크기 -0.412), 불안(경로계수 -0.101, $p < 0.001$, 효과크기 -0.239) 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에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는 자아존중감(경로계수 0.3, $p < 0.001$, 효과크기 0.404), 우울(경로계수 -0.087, $p < 0.001$, 효과크기 -0.169), 불안(경로계수

-0.026, $p < 0.001$, 효과크기 -0.084)으로 나타났다.

연령 이외에 대학생생활만족도와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적 증상(효과크기 0.026), 우울(효과크기 -0.126), 불안(효과크기 -0.07)으로, 이는 신체적 증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우울과 불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대학생생활만족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건강수준에 따른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생활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고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의 심리적 증상과 대학생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신체증상의 차이에 대한 이방락 등[26]의 연구에서는 신체증상의 빈도와 수준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선행 연구[27, 28]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보다 많은 빈도의 신체증상과 보다 높은 강도의 신체증상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가족관계나 장애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취업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연구[29]와는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연령별로는 21세 이상이, 건강수준에서는 불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그룹이 유의하게 높은 소화기장애, 심혈관장애, 동통, 불면증과 같은 신체증상을 보였다($p < 0.05$).

심리적 증상의 경우, 우울증상의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서 성별로는 여학생이, 연령은 21-25세에서, 건강수준이 낮은 그룹이 통계적으로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불안 증상의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서 성별로는 여학생이, 건강 수준이 낮다고 인식한 그룹의 불안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증상은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과 불안이 증가할수록 신체 증상도 증가하는데[28-31], 신체적증상과 심리적증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경우, 성별로는 여학생이, 연령은 21-25세와 26세 이상의 그룹이, 학과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건강수준이 높은 그룹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내적 자원으로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은 의미 있는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2-34]. 본 연구에서 우울 및 불안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32, 33]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활만족도의 선행 연구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이 대학생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 본 연구에서 대학생생활만족도의 경우, 성별로는 여학생이,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학과의 경우 의료생명계열이, 건강수준이 높은 그룹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p < 0.05$).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이들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들과 우울, 불안, 소화기 장애, 심혈관 장애, 동통, 불면증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01$).

경로분석 결과, 연령은 대학생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있으며,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은 대학생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신체적 증상은 긍정적인 영향을, 우울과 불안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과 대학생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크기 및 경로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신체적 증상과 우울, 불안의 심리적 증상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증진과 함께 대학생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후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 2013

REFERENCES

- [1] KANG Bu-myeong. College Students' Social-psychological Stressors and How They Deal with Stressors: focusing on differences by gender, grade and major.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03.
- [2] Bjorkman SM .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stress, social support,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in adolescenc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8, 3293. 2008.
- [3] Kwon S. An empirical study on influential stress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10(1), 1-29. 2009.
- [4] KWON Kyeong-mi.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Scale for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ersonality Disorders) for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Liberal Dance Education. Doctorate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09.
- [5] Rahim, MA . Relationships of stress,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upport to psychiatric symptoms and propensity to leave a job: a field study with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12(2), 159-174. 1997.
- [6] Rhyu, JH, Kim TS (1998).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job-seeking stress and stress coping mod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16, 211-232. 1998.
- [7] Kliewer W, Sandler IN .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s moderates of stressor-symptom rela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4), 393-413.1992.
- [8] SEO Kyeong-hyun, JEONG Seong-jin, KOO Ji-hyun . Spiritual Well-Being, Life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4), 1077-1095. 2005.
- [9] KO Jeong-ja . A Study on the Job Stressor during Teachers' Duties Affecting the Stress at Work and the Intermediate Effects of Self-Esteem. *The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3(4), 247-268. 2009.
- [10] YOO Byeong-ki . An Effect of College Student's Stress, Self-Esteem on their Anxiety. *The Journal of Institute of Korea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1), 33-43. 2010.
- [11] YOO Eun-yeong. Self-Esteem and Stress-Coping Strategies of the Colle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9(6), 225-236. 2009
- [12] HWANG Seong-ja .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2006.
- [13] Cohen CS, Hoberman HM .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1983.
- [14] Cohen CS, Wills TA .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35. 1985.
- [15] Bovier PA, Chamot E, Perneger TV. Perceived stress, Internal resources, and social support as determinants of mental health among young adults. *Quality of Life Research*, 13(1), 161-170. 2004.
- [16] HA Joo-yeong . Impact of Self-esteem, Family Function and Social Support on Stress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7(2), 259-266. 2010.
- [17] Laurence B, Williams C, Eiland D.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dental students at a historical black college and universit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8(1), 56-63. 2009.
- [18] Han Duk-woon, Lee Chang-ho, Tahk Jinkuk(1993).

- Standardization of Spielberger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Korean Psychological Society, 1993 annual convention, 111-114.
- [19] Beck AT(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 Harper and Row.
- [20] Beck AT, Epstein N, Brown G, Steer, RA.(1988) :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 Consult Clin Psychol, 56, 893 - 897.
- [21] Lee Young-ho, Song Jong-yong(1991).A Study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BDI, SDS, MMPI-D Measur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0(1) : 98-113.
- [22] Huang Yoon-kyung(1996).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Perceived By Young Adults And Psychosocial Maturity .A master's thesis, Ewh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23] Bahk Ji-won(1985). A Study On The Development Scale Of Social Support. A doctor's thesis. Yonsei University.
- [24]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5] Han Eun-seong(2008). A Study on Students's Campus Life Satisfaction. a master's thesis. Suw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26] Lee Bang-lahk, Kim Dae-Jin, Shin Min-seob, Choi Bo-mun(2002) A Preliminary Research on The Standardization For The Korean Version Of Physical Symtoms List. Neuropsychiatry Journal 41(1), 146-158.
- [27] Youn Kyu-wol(1995). College Students' Psychosomatic Symtoms Measured By SUNYA Scale. Ewha Medical School Journal. 18(3), 207-214.
- [28] Oh Kyung-hui(2009). The 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Life Stress And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 [29] Kim Hye-jeong(2004). The Connection Between The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Anxiety , Physical Symtoms Among College Students. A master's thesis. Kyungbu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 [30] Kim Sahn(2010).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Distortion On How The Trait Anxiety of Young Adults Influence Their Physical Symtoms. A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31] Jang Ae-kyung, Lee Ji-yeon(2011). Mediating Effects of Validating From Oth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Their Depression, Anxiety. Counseling Study, 12(3), 881-896.
- [32] Lyu Jin-hye, Kim Tae-seong(1998). How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ffect Job-seeking Stress And The Management Format. College Life Study, 16, 211-232.
- [33] Kim Sang-ohk(2009)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Their Mental Health ; focusing on depression and anxiety. A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
- [34] Bahk Sun-uk (2010). How College Students' Campus Life Stress, Reacting Method, Self-esteem, Maladaptive Perfectionism Affect Their Suicidal Impulse. A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 [35] Ha Joo-young(2010). How Self-esteem, Family Function and Social Support Influence College Students' Stress. Fundamental Nursing Journal, 17(2), 259-266.

김 남 송(Kim, Nam-song)



- 1985년 2월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교 졸업
- 1991년 2월 : 의학박사
- 1996년 3월~ 현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관심분야 : 예방의학, 보완의학, 보건학

· E-Mail : knsong@wonkwang.ac.kr

이 용 호(Lee, Yong-ho)



- 2009년 2월: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보건·보완의학대학원 보건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보완건강미용, 식이영양, 운동처방, NLP

· E-Mail : winpops@daum.net

김 희 경(Kim, Hui-kyung)



- 2011년 2월 :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향장미용학 석사)
- 2012년 2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
- 2008년 8월 ~ 현재 : 군장대학교 겸임교수
- 관심분야: 피부미용, 보건학, 보완의학

· E-Mail: khk-3600@hanmail.net